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동강주사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동강주사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마다 공장 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대동강주사기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영도밑에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일떠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00년 12월 인민군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공장을 찾으시고 질좋은 주사기와 점적기구들이 생산되는것을 보아주시며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귀전에 울리는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높은 생산성과로 한평생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종합지령실, 사출기실, 조립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언하신 다음 공장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생산을 높

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고 주사기의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에서 주사기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늘리고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각각한 규격의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자면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대동강주사기공장을 우리 나라 의료기구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현대화하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위한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하여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

산공정의 흐름선화,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주사기공장으로 전면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대동강주사기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 국산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현대적인 기술공정들을 꾸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의료봉사수준은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인 의료기구를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질좋은 주사기와 점적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충분히 보내줄수 있게 필

요한 대책을 세워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신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한 현대적인 의료기구 생산기지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주체보건, 인민보건의 물질기술 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룽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룽악산샘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면시켰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나감으로써 질좋은 샘물을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신 다음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룽악산샘물공장은 룽악산샘물이 대단히 좋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떠세워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샘물공장이 건설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공장이름을

몸소 《룡악산샘물공장》이라고 명명해 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좋은 샘물을 보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공장에 불멸의 영도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순간도 잊지 말고 높은 생산성과로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통합조종실, 용기생산공정, 원수쁨프장, 샘물생산공정, 제품보관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샘물의 위생안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먹는물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생산현장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폐시키고 위생통과실을 새로 꾸렸으며 공기조화 및 정화설비를 설치하여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을뿐아니라 생산지휘와

제품관리, 작업현장의 위생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룽악산샘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대한 문제, 생산된 샘물을 제때에 실어나를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 유리병용기의 색깔과 형태를 표준화,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폭의 그림같은 룽악산샘물공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번듯하게 포장된 구내도로와 갖가지 나무들과 꽃판목들로 둘러싸인 공장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산환경이 최고이라고 하시면서 아담하고 산뜻한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들, 생산

공정들만 보고서도 위생안전성이 확고히 보장된 공장이라는것이 알린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룽악산샘물공장이 훌륭히 개진됨으로써 수도시민들에게 샘물을 더 풍족하게 공급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룽악산샘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좋은 샘물을 더 많이 공급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30년 추억 속에 참된 삶의 진리를 되새겨봅니다

세월은 류수와도 같다더니 제가 주인(최덕신)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0년은 결코 평범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10 900여 일, 그 날들은 암흑속에 헤매이던 우리 내외가 백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인생의 광명을 찾고 《신인간》으로 환생한 기간이였고 무한한 행복과 영광속에 온 천하를 주고도 비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달은 궁지높은 나날들이였습니다.

인민종종,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진정한 삶의 품, 한울님의 나라에서

인생길을 잘못 택한탓에 설음과 눈물로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저의 마음속에 나날이 갈마든 것은 량쪽 선친들의 유골이 묻히고 고향이 있는 공화국에 대한 그리움이였습니다.

하여 저는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공화국을 다녀온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으며 그들을 통해 공화국에서는 남조선이나 서방의 악선전파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모두가 기를 펴고 조선민족답게 떳떳이 살고있는 공화국이 바로 내가 살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은근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생 어두운 세상에서 남에게 속히우고 뜯기우기만 하면서 살아온 저였으니 제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던 저는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동포로부터 북에서 량집 아버님들의 묘소를 정성껏 돌봐주고 있더라도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더는 주저할수 없었고 조용히 찾아가 선친의 묘에 성묘라도 하고싶은 심정을 누를길이 없었습니다.

공화국이란 말만 듣고 한번도 가보지 못한 저의 가슴은 흥분으로 높뛰였지만 막상 평양행을 하자니 마음은 개운치 못했습니다.

사실 빠득깊이 숨배인 공화국에 대한 편견과 의혹감으로 《친미반공》을 일삼던 주인을 따라 남조선에서 이국으로 방황하던 사람이 인생말년에 와서 북행길에 오른다는것이 체면도 없고 실현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되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북에 간다고 해도 공화국에서 나와 우리 주인을 파연 어떻게 대해줄가 하는 위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심하던 제가 난생처음으로 공화국을 방문한것은 주체 71(1982)년 4월이였습니다.

4월 어느날 제가 주인과 함께 소문없이 평양비행장(당시)에 내리니 뜻밖에도 귀여운 소년단원이 달려와 끝다발을 안겨주고 관계일군들이 친절히 맞아주었습니다.

공화국은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며 로인들과 웃사람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사회, 사람들이 외래어가 아닌 고상한 자가 나라 말로 일상대화를 하고 자기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부르는 나라, 단군성지들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들이 그대로 계승보존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공화국의 꿈 같은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자연히 이런 인민의 락원, 인민의 세상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을 만나뵈울수는 없을가 하는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소망이 그처럼 빨리 이루어질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공화국을 처음 방문하여 직접 본 현실은 정말 제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화국은 남조선과 해외에서 살 때 한입건너 두입건너 전해지던 리상향 이야기그대로 령도자와 인민이 한피

정치가 꽂퍼나는 공화국의 품이 아니였더라면 저는 이미 저세상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꿈결에도 잊을수 없고 언제나 그리운 어버이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님의 품에 안기였기에,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기에 저는 90살을 넘긴 나이에도 로당의 장하면서 세상만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잊을수 없는 30년 체험속에 스스로 찾은 삶의 진리를 말하고자 둔필이나마 나름대로 글을 엮어보았습니다.

인민종종,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줄을 이은 혼연일체가 되여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만방에 빛내이는 나라, 혁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뚫고헤치며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가는 이 세상 제일 강한 나라, 정의롭고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공화국에 온 저에게 제일 인상깊었던 것은 이곳 사람들이 쓰는 《자주》, 《존엄》이라는 말과 자주정신으로 일관된 그들의 생활기풍이었습니다.

거리의 여러곳에 나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등의 구호들은 주체사상의 가치따라 인민의 락원,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를 자기 식으로 건설해나가는 공화국의 기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령도가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국제무대에서 제 할 말을 다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전드리는 적대세력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고 초강경으로 다불리는 나라가 공화국이었습니다.

공화국은 인민이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인상무인》, 《인하무인》의 사회였습니다.

국호와 군대이름, 귀중한 창조물들에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월한 사회의 성격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진귀한 보석들이 일개인의 목걸이나 반지에서가 아니라 평양산원의 중앙홀바닥에 깔려 빛을 뿐리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공화국에서 인민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여러가지 국가적혜택속에 행복하게 살고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돋고 이끌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주고받는 말은 《동무》, 《동지》, 《우리》라는 친근한 부름이었습니다.

제가 세상 곳곳을 헤매면서도 찾을 수 없었던 존엄높은 나라, 천도교에서 말하는 《인내천》리념이 현실화된 《이민위본》, 《덕치사회》가 바로 공화국이었습니다.

공화국은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며 로인들과 웃사람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사회, 사람들이 외래어가 아닌 고상한 자가 나라 말로 일상대화를 하고 자기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부르는 나라, 단군성지들을 비롯한 민족문화유산들이 그대로 계승보존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공화국의 꿈 같은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자연히 이런 인민의 락원, 인민의 세상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며 저는 거기에 폭을 추기고 소생한 생명입니다.

나날이 커만 가는 사랑속에 저희 내외의 가슴속에 차오른것은 자애깊고 다심한 위인들께서 계시는 조국의 품에 안겨 여생을 보내고싶은 갈망이였습니다.

제주 71(1982)년 5월 3일 저는 주인과 함께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한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내외를 반갑게 맞아주신 주석님께서는 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건강에 대해

류 미 영

물어주시였고 남조선에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보고싶겠는가고, 언제 한번 아들들이랑 가족들을 다 데리고 평양에 오라고 은정깊은 말씀을 하여 주시였으며 저희들을 위해 오찬까지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저를 자신의 곁에 앉히신 다음 몸소 축배잔을 찧어주시고 유명한 백두산들쭉술이며 민물고기인 쏘가리로리, 록두지짐 등 별식들도 따뜻이 권하시였습니다.

인자함과 소탈함, 너그러움이 훌륭져나는 주석님앞에서 저는 초기의 긴장감을 잊어버리고 허물없이 마음속이야기를 다 터놓았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이날 우리 민족이 단합하기만 하면 조국통일은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으며 통일이 되면 우리 나라도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는데 대하여, 우리 인민은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꼽고나갈수 있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파 국가사업을 잘지도록 하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먼 후날에 가서도 풍파와 곤경이 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숭고한 민족애가 넘치는 참으로 뜻이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오면서 절세의 위인들께서 계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기에 이렇듯 사람을 한울처럼 여기는 회한한 별천지, 인간종시, 인간존중, 인간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졌구나 하는것을 폐부로 깊이 느낄수 있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공화국을 방문하고싶어하는 저와 주인의 소망을 헤아려주신분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이시였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저와 주인이 조국에 영주하기 전부터 저희들의 전강과 신변에 이상이 생길세라 각별히 관심해주시였고 공화국을 방문할 때면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저희 내외의 조국방문을 실현시켜 주시고 방문기간 생일을 맞는 저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분, 북부 암성질환으로 꺼져가던 이 몸을 조국에 데려다가 완치시키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고 비행기편의보장과 입원치료, 숙식조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신분도 위대한 주석님이시고 위대한 령도자님이시였습니다.

저희 내외의 조국방문을 실현시켜 주시고 방문기간 생일을 맞는 저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분, 북부 암성질환으로 꺼져가던 이 몸을 조국에 데려다가 완치시키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고 비행기편의보장과 입원치료, 숙식조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신분도 위대한 령도자님이시였습니다.

저는 그 나날 공화국인민들이 조국의 품이라 부르는 우리 주석님, 우리 령도자님과 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온몸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조국이 아니였더라면 저는 설음많던 망향객의 그림자마저도 못남기고 이미 땅속에 묻히고 말았을것입니다.

조국에서는 저자신도 모르고있던 병들까지 다 찾아내어 말씀히 치료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그후 우리 내외를 또다시 불러주시고 저의 수술결과를 친히 알아보시였으며 해당 일군들에게 수술후 7개월이면 괜찮은지 확인도 하시고 뜻깊은 점심식사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정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의 사랑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이며 저는 거기에 폭을 추기고 소생한 생명입니다.

나날이 커만 가는 사랑속에 저희 내외의 가슴속에 차오른것은 자애깊고 다심한 위인들께서 계시는 조국의 품에 안겨 여생을 보내고싶은 갈망이였습니다.

제주 75(1986)년 8월 16일이였습니다.

그때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조국땅 북변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고 계시였는데 우리 내외가 조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저희들을

친히 그곳으로 불러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부정맥이 자주 와서 고생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어떤가를 상상해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저의 주인에게 부정맥은 늙으면 의례히 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의 정상적인 감시속에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선생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어떻게 의사들의 정상적인 감시속에서 살수 있겠는가고 걱정하시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주석님께서는 아무

리 생각해봐도 선생과 부인은 조국에 와서 사는것이 안전할것 같다고 하시며 곁에서 돌봐줄 자식들도 없는 데 조국에 와서 사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다심한 어버이심정으로 물으시는 것이였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조국앞에 떠나온 파거로 하여 번민하고있었던 저희들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려보시고 하시는 고마운 말씀이였습니다.

뜨거운 인정미가 넘치는 그 말씀에 감복하여 저의 주인은 저의 마음까지 합쳐 《주석님, 이 불민한 자식을 받아주실수 있다면 기꺼이… 조국에 와 살겠습니다.》라고 무렵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석님께서는 생각을 잘하였다, 우리 가까이에서 서로 도우며 친형제처럼 살아가고 정깊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여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체 75(1986)년 9월 25일 우리 내외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공화국에 영주한다는것을 내외에 알리였으며 꿈속에서도 그려보던 조국의 품에 삶의 달을 내리게 되였습니다.

저희들 부부의 공화국영주는 삶의 항로를 매국에서 애국으로, 불의에서 정의에 대담하게 바꾸어 《신인간》으로 태여나는 환생의 계기였습니다.

위대한 그 품에 안기였기에 락엽과도 같이 흘날리던 이 품이 남조선과 해외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가장 참다운 인간의 삶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조국에 영주한 저희들에게 고급주택을 배려해주시고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몸소 찾아주시였으며 새집들이를 하는 날이 저의 주인의 생일날이라는 것을 헤아리시고 훌륭한 생일상까지 차려주시였습니다.

예로부터 화는 쌍으로 오고 복은 흘로 온다고 했건만 집들이를 한 날 저의 집에는 복이 겹쳐들었습니다.

저의 주인이 세상에 태여나 생일이 일흔번나마 찾아왔지만 언제 한번 인상에 남는 생일이 없었습니다. 예순번째 생일조차 유럽땅에서 즉석 국수 한그릇으로 굽매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령도자님께서 타향에서 맷힌 저희들의 설음을 한꺼번에 가셔주시려 새 집을 마련해주시고 몸소 주인의 생일까지 헤아려주시였으니 그 고마운 은정에 목이 메여 우리 내외는 걱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정말 그 하루는 저의 주인에게 있어서 일흔두번째 생일이 아니라 한울님의 은총속에 거듭되는 복을 받아안고 지상천국에서 새 삶의 걸음마를 헤는 의미깊은 날이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커만 가는 사랑과 믿음속에 저의 주인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천도교청우당 종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되였습니다.

그 나날에 우리 내외는 인민위주의 정사가 펼쳐지고 민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는 공화국의 품이야말로 흐린 물, 맑은 물을 탓하지 않는 대하와도 같이 너그러운 인정의 바다, 온 겨레가 운명을 맡기고 살 삶의 보금자리라는것을 더더욱 온몸으로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운명의 하늘, 마음의 기둥이 신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였기에 저는 주인이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

난 후에도 절대로 외로운줄 몰랐습니다.

저의 주인이 사망한지 이를째 되는 날 주인과 영결하시기 위하여 밭인장소에 몸소 나오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저를 다시금 따뜻이 위로해주시였습니다.

해외에서 특별비행기를 태고 한발 늦어 도착한 저의 딸아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주석님께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국통일을 위해 일을 잘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곧 저의 일신상의 문제로 화제를 돌리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저에게 주인이 돌아갔으니 이제는 어디서 살겠는가고 근심어린 어조로 물으시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홍안의 시절에 벽년가약을 맺고 인생의 풍상고초를 함께 겪으며 운명의 가시밭길도 헤쳐왔고 기쁨과 고행으로 온몸에 나누어온 주인을 잊고 곁에 의지할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주석님의 자애깊은 말씀을 접하는 순간 마음속 한구석의 그늘이 씻은듯이 가셔지는것 같았

(2면에서 계속)

진정 어버이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님은 저와 주인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삶의 태양이시였고 운명의 하늘이시였습니다.

저는 조국에 영주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2006년 9월 25일 한 천도교 가문의 운명을 전져주시고 뜨거운 믿음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신 위대한 령도자님께 한없는 고마움과 온넋으로 따를 충정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삼가 울리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남녀땅과 낯설은 이국 땅에서 『반공』으로 한생을 살아온 우리 내외가 인생의 단풍계절에 이르러서야 조국이 무엇이고 사랑과 인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심중의 고백, 장군님의 안녕은 한울님의 뜻이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편지를 보아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친필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건강장수와 가문의 행복을 바랍니다.』

김정일

2006. 9. 27.』

위대한 령도자의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이 함축되어있는 이 친필글발은 오늘도 저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습니다.

제가 주체88(1999)년 6월에 국가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외국방문을 하

고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국가적인 큰 회의들에 참가하여 정사를 론하며 2000년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민족사적사변을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지니게 된것도, 주체89(2000)년 8월 15일 제1차 흘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북측 단장으로 서울을 당당히 찾게 된것도 위대한 령도자님의 크나큰 믿음, 성은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위대한 주석님, 령도자님이 그리울 때마다 기념사진과 함께 제가 받은 수많은 선물명세들을 펼쳐보군 합니다.

그럴 때면 위대한 수령님들을 또다시 만나뵈옵는것만 같고 그 품에서 거듭거듭 받아안은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떠올라 눈물만 나옵니다.

정녕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서 『신 인간』으로 환생하여 우리 천도교인들이 갑오봉기의 선혈로도, 3.1의 만세로도 이를수 없었던 『보국안민』,

『척양척왜』, 『광제창생』, 『제폭 구민』, 『포덕천하』, 『지상천국』의 티념이 실현된 리상향을 현실로 체험하며 참다운 삶을 누려온 저야말로 최상의 행운을 태고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복정치로 민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진심으로 아끼고 내세워주는 공화국은 온 겨레가 안겨 살 진정한 삶의 품, 한울님의 나라입니다.

《선군정치 만세!》를 불렀습니다. 한다면 하는 결단성, 하면 기어이 끌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지니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공화국은 자위의 핵공격능력을 런속 공개함으로써 이제는 미국의 침략과 핵위협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상의 높이에 오른 공화국의 핵보복타격능력을 그 누구도 부정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지킬뿐아니라 침략의 무리들을 직접 그 본토에서 소멸해버릴수 있는 막강한 힘을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 자주의 핵강국입니다.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의 무분별 한 반공화국도발소동으로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지난해 8월 사태만 둘이켜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아니시였다면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를 지켜보던 그 시각 외세가 몰아온 동족상쟁의 가혹한 소용돌이속에서 겨레의 생명과 리익, 평화를 지켜내고 우리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기약하는 이런 무전무혈의 대승리, 전대미문의 혁사적사변이 어떻게 일어날수 있었겠습니까.

새해 정초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과 지상대지상증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의 성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핵탄두폭발시험의 대성공을 비롯하여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할 때마다 저는 너무 기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북 단군릉에서 북파 남, 해외의 관심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고 주체104(2015)년 11월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열린 북남종교인들의 회합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열기가 넘치는 의미깊은 마당으로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자강력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위해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경이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창출하고있는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현신의 희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옛말로 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들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이 나는것이 오늘 우리 공화국의 현실입니다.

하늘에선 우리가 만든 위성과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땅우에는 려명거리를 비롯한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련이어 마련되는 희한한 현실은 정말 말만 듣고서는 믿기 어려울것입니다.

별천지를 무색케 할 육아원, 애육원들과 각급 학원들이 이르는 꽃마다 일어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우는가 하면 희한한 양로원에서는 짚음을 되찾은 로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해가니 가는 곳마다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리고 새롭게 단장된 명소들과 명승지, 문화정서생활기지마다에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이 문명하고 복된 생활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변은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 조국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철주야의 사색과 현신의 결정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의 꿈과 미래를 꽂고위주시는 리상향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번에 조국의 북면 두만강연안에서는 해방후 기상판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게 되였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강요하는 재난은 천재지변이여서 누구도 막을수 없는것이고 그로 인한 혹심한 피해는 어쩔수 없는것으로 인류사에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처에서는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슬픔과 비애에 찬 탄식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에서 자연재해는 있어도 삶의 보금자리를 잊고 불행에 우는 리재민은 볼래야 볼수 없습니다.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페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신문과 방송으로 접했을 때 저는 뜨거운 격정에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폐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재해지역을 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키려 북

부페해복구전선을 200일 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으로 지정해주시고 국가적인 중대사로 추진되던 려명거리 건설까지 중지하고 모든 려량을 페해복구전선으로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은 동서고금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고 인류가 알지 못하는 감동적인 인민사랑의 최고절정입니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말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께서 계시여 이제 오래지 않아 지난해 라선땅에 울린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함북땅에서도 또다시 세차게 울려퍼지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그처럼 따사로운 품에 안겨살고 그처럼 자애로운 인덕의 정치를 매일 매시각 폐부로 받아안으며 사는 우리 조국의 인민들보다 행복한 인민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몇 달 전 공화국을 방문한 한 재로 씨 야동포는 『나의 조국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분의 탁월한 령도, 한없는 친화력, 자애로운 미소는 그대로 조선의 미래이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를 조국의 미래를 본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심정이자 저의 마음속에 성돌처럼 자리잡은 신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한을 처럼 떠받드는 사랑의 품에서 저도 95살이 된 오늘까지 아무런 걱정없이 복된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낳은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손자, 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로 불리우는 지금까지 제가 그토록 오래 살고있는것은 가문의 명이 걸어서가 아니며 특별한 약의 효과도 아닙니다. 령도자가 위대하고 좋은 제도를 만난 덕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님께서 베풀어주시던 믿음과 사랑을 저에게 그대로 안겨주고계십니다.

주체101(2012)년 2월 14일을 비롯하여 저의 생일날들에 여러차례 생일상을 보내주시였고 광명성절을 비롯한 명절마다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시였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애로를 느낄 세라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이 이전 같지 않아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 늙은이의 생일까지 잊지 않으시고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죄스러운 생각만이 앞설뿐입니다.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제가 위대한 령도자님으로부터 위대한 주석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 조국통일상을 비롯한 많은 훈장을 받았지만도 과분한 일인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령도자님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훈장을 수여받게 해주시였으니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세상에 장수자들은 많아도 100살을 눈앞에 둔 때까지 3대에 이르는 수령복, 장군복속에 국가의 중임을 맡아보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의 주인의 생일 100돐이 되던 날인 2014년 9월 17일을 계기로 자신의 명의로 되화환을 보내주시고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행사를 열도록 배려하여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그러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회식에서 이미 우리곁을 떠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 잊지 못할 조선로동당의 혁명전우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저의 주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대회가 있은 후에는 몸이 불편하여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저에게도 대회참가자들이 받아안은것과 꼭같이 초대장과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것 아닙니까. 정말 꿈만 같은 일이였습니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력사에는 17세기의 화가 렘브란뜨의 명화 『불효자식 돌아오다』와 같은 이름있는 작품들이 전해지고있지만 그 어떤 명화가도 이런 인덕의 대화폭을 형상해내지 못할것입니다.

저는 그날 가정을 대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올리면서 위대한 주석님과 령도자님의 유훈을 반들어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통일애국성업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혼신을 다해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저의 주인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감격하여 만세를 부르며 큰절을 올렸을것입니다.

자연계의 대지에는 그늘이 있지만 위인의 품에는 음지가 없습니다.

위대한 어버이품에 안겼기에 저의 주인이 영생하고 제가 한생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성인을 모시여 우리 민족이 그처럼 바라는 조국통일의 날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나라가 강해지고 인민이 위대해지며 민족의 미래가 담보된다는것. 바로 이것이 수난과 영광이 명암처럼 대조되는 판이한 두 세상에서 살아본 저의 인생총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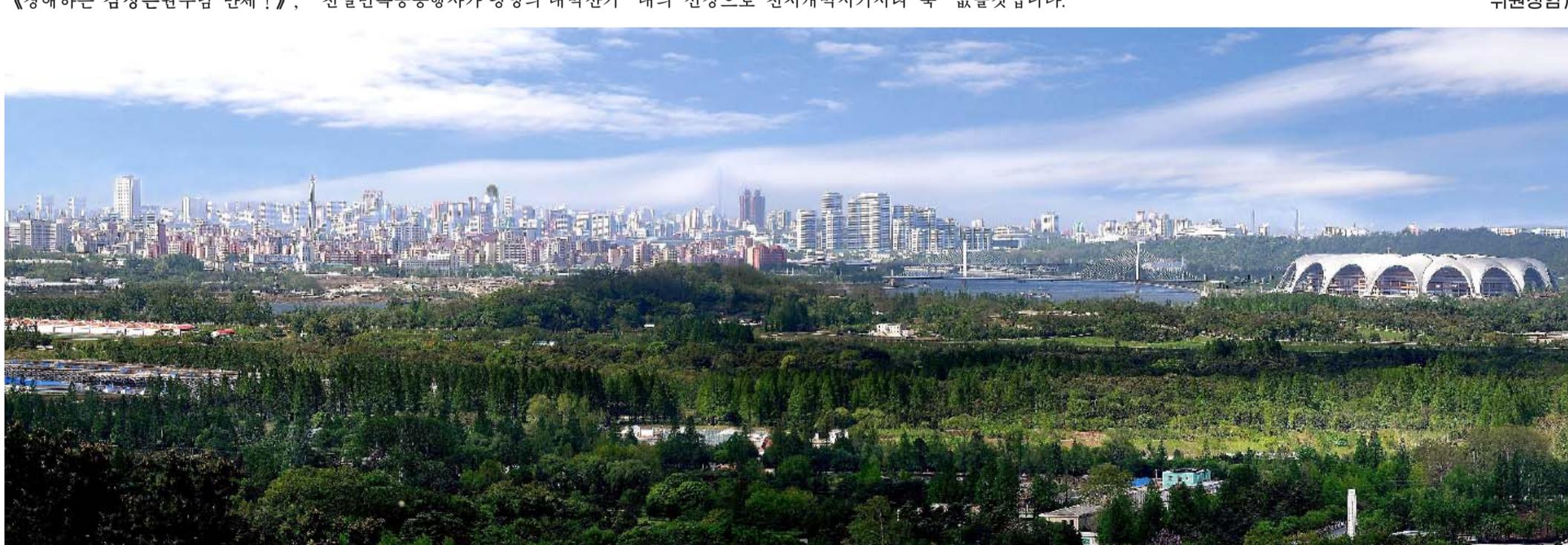
오늘 단군민족이 현세의 한울님으로 청송하며 따르는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며 원수님의 품은 온 민족이 영원히 운명을 맡기고 살자애로운 품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와 진리도, 그것을 지키는 힘도, 온 겨레가 복락할 통일강국의 미래도 그 품에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살고있는 제가 이 글을 통해 오늘에 사는 세대와 후대들에게 남기고싶은 부탁은 통일강국 건설을 위해,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우리 운명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모시고 그이의 선군령도와 통일애국위업을 총정으로 반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울님의 품에 안겨 복된 삶을 누려온 나날을 추억하며 평범한 늙은이가 다시금 빠속깊이 새겨안는 한생의 진리이며 량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 수행에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긴 역사적인 10.4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9돐이 되여온다.

돌이켜보면 주제 96(2007)년 10월 평양에서 협력적인 북남 수뇌상봉이 또다시 진행되고 여기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6.15의 위업을 이어나가며 그 정신을 구현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준 역사적사변이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이다.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10.4선언이야말로

북남공동선언리행에 화해와 통일이 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실천강령을 받아안게 되었으며 더욱 큰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해갈수 있게 되였다.

10.4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통일되고 번영하는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현신과로고에 의해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시여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제 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또 다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매한 덕망으로 평양에 찾아온 남측대통령일행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오랜 시간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실험에서 나서는 모든 실천적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지난 9년간은 우리 겨레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당성과 함께 그 리행의 절박성을 더욱 깊이 새겨준 날이였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관계없이 북남합의들이 충실히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는 복잡한 우여곡절

을 겪지 않았을것이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루되었을것이다.

10.4선언이 채택된 이후 남조선에서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보수파당이 집권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쳤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용광리적문건』이니, 『부도난 약속이음』이니 뛰니 하고 헐뜯고 전면부정하며 선언들에 의해 이룩된 성과들을 광그리 유린말살하였다.

동족대결의식이 풀수에 들어찬 남조선의 현 보수 『정권』도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북남관계를 끌어 없는 대결에로 몰아가고있다.

남조선보수당은 지금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으로 전례없는 동족대결광풍을 일으키는 한편 그 누구의 『핵파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반공화

국제재소동의 앞장에서 길길이 날뛰고있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공화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진정성』이니, 『위장평화공세』니,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니느니 뛰니 하며 히스데리적대결광기를 부리고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동족압살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에 매일같이 광분하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보수당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동족대결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갈수록 현실화되고 민족의 운명은 시시각각으로 위협당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호전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하루빨리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변함없

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다. 남조선에서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대결망동으로 북남관계가 최대로 악화되고 전쟁위험이 날로 높아져온 현실은 북남공동선언의 철저한 고수리행에 평화와 통일이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응호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기치높이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김새벽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조선학생위원회에서 남조선과 해외의 청년단체들에

편지를 보내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조선학생위원회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 《한국청년련대》, 《대한불교청년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준비위원회,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들에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애국의 불타는 의지와 열정을 안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귀 단체에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민족앞에 드리운 난국을 타개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해내외의 전체 청년들이 선봉에서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것을 호소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청년단체들과 청년들이 조선청년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적극 호응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는 북, 남, 해외청년들의 실무접촉을 오는 10월 중순경에 평양 또는 합의되는 장소에서 진행하자는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제의는 지난 기간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성전에서 언제나 앞장서온 우리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북과 남, 해외의 열혈청춘들이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밑

에 굳게 단결하여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하루빨리 이루하여 조국통일의 대문을 앞장에서 열어제끼려는 열렬한 애국의지로부터 출발한것입니다.

우리는 남파 해외의 각계층 청년단체들과 청년들이 조선청년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적극 호응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는 북, 남, 해외청년들의 실무접촉을 오는 10월 중순경에 평양 또는 합의되는 장소에서 진행하자는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제안에 귀 단체가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조선학생위원회 주제 105(2016)년 9월 22일



룡남산과 더불어 영원히 전해가렵니다

려져있었지만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의 군정통치밑에서 식민지지식인의 운명을 통탄하던 아버지는 종합대학의 높은 교단으로 불러주신 아버이수령님의 믿음이 너무 고마워 주저없이 38°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아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위촉장을 품고 남조선의 많은 교원, 학자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겼고 후에는 서울의 법정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들이 숨을 죽이고 철도운행은 중단되었으며 인민들의 생활형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에 의해 나라와 민족이 영구분열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의견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일군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다음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아버지로부터 다시금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새 교사의 위치를 봉남산언덕에 옮기도록 하는 중대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이름없는 학자학자의 무릅없는 제의도 귀중히 여겨주시며 이미 정해졌던 종합대학의 건설부지까지 바꾸도록 해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는 철세위인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를 가슴뜨겁게 느끼였습니다.

도 아버지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며 주제 45(1956)년 1월에는 사회과학원 혁사연구소 소장의 종임을 맡겨주시였습니다.

몸은 비록 정든 대학교장을 떠났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봉남산의 교단에 마음을 얹고 살았습니다.

그 나날 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친출위인상에 접하게 되였고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일찌기 봉남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일 용지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할수 있도록 하여주는 통일학을 졸업한 후에는 봉남산의 교단에 세워주시는 은정어린 조치들도 취해주시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의 사업과 우리 가정에 대해 자주 알아보시고 군사복무를 마친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김일성종합대학의 첫 교단에 섰던 저의 아버지를 축복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첫 교단에 섰던 저의 아버지를 축복해주시며 그에 맞춰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워주시며 그나쁜 신임을 거듭 안겨주시였고 김일성훈장 수훈자, 김일성상계판인, 원사, 교수, 박사로 키워주시였습니다.

대학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며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 102(2013)년 11월 교수의 칭호를 받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편지를 올렸을 때 그이께서는 몸소 저를 축복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응축되어여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1등급의 대학으로 꾸리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입니다.

대학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며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이 걸어온 70년, 그 역사의 갈파를 더듬어볼수록 위대한 태양의 존함을 보신 대학의 자랑찬 발전과 더불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고 빛내여갈 결의가 더욱 굳어집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교수, 박사 김은택

9월의 하늘에 비친 판이한



얼마전 군사분계선을 마주하고 북과 남의 하늘에서는 똑같은 시각에서 다른 항공행사들이 펼쳐져 세인의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원산국제 친선항공축전-2016》

강자의

선군조선의 핵에 질겁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오산미공군기지상공에서 멋진 늘음을 벌려 댈 때 공화국의 원산상공에서는 《원산국제 친선항공축전-2016》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축전의 명칭이 보여주듯이 평화와 친선을 구하는 화려한 항공축전이었다. 여기에는 공화국의 수많은 각계층 주민들과 평양주재 외교 대표부들, 여러 나라들에서 온 애호가들도 참가하였다.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여러 기종의

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련합공군력의 날 2016》 행사이다. 지맥은 하나로 이어진 강토이지만 그 성격이나 목적, 분위기 등에서 너무도 판이하였다.

여유

비행기들이 다채롭고 재치있는 동작으로 아름다운 비행운을 새기며 날았다. 낯추면서 관람자들의 머리우를 스칠듯이 날아오는 세련된 비행기 교도 펼쳐졌다. 그때마다 관중들은 《야!》, 《야!》 하며 감탄을 터뜨렸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몰아오는 제재와 군사적 위협으로 다치면 터질듯 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말거나 평화스럽게 펼쳐진 특색있는 항공축전.

보통의 담파 자신감으

로는 펼칠수 없다. 말그대로 강자의 여유이다. 미국과의 세기를 이어오는 핵대결전을 펼치고 있는 공화국은 오늘 군사적 전지에서 될것은 다 뒤고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임의의 순간에 마음먹은대로 두들겨 팬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이제는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운명도 공화국의 손락에 달려

약자의

지난 9월 24일과 25일 남조선 상공에서 《한미련합공군력의 날 2016》 행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미국과 남조선의 여러 공군기들이 참가하여 그 누구를 겨눈 각종 전투동작을 하였다고 한다. 연습이 진행된 오산미공군기지에는 미국의 핵전략폭격

로는 펼칠수 없다. 말그대로 강자의 여유이다. 미국과 추종세력이 《웅정》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며 감히 도발의 사소한 기미만 보여도 단매에 짓뭉개버릴 만단의 준비태세와 각오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 배포유해하지 않을수 없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눈에는 팜도에서 날아오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도 한갓 파충덩이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허세

기 《B-1B》도 전개되어 폭격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놀음도 벌어졌다. 이에 앞서 미국은 팜도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완전 무장한 핵전략폭격기 《B-1B》를 남조선 군사분계선지역 상공으로 왕복 비행시키면서 핵폭탄 훈련을 벌려놓고 그중 1대를 오산공군기지에 착륙,

전개시키였다. 사상 처음으로 되는 핵전략폭격기 《B-1B》의 남조선지상 전개에 대해 미국은 《북지도부에 대한 군사적 압박 도수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느니,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면 전략폭격기 《B-1B》를 〈한〉 반도상공으로 비행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한미련합공군력의 날 2016》 행사가 무엇을 노린 불장난소동인가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핵무력 강화조치를 런속 취하는 공화국에 군사적인 위압감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자의 행동이 아니라 극도의 공

두현실

포감파 폐배의 식에 잠겨있는 자들이 부리는 한갓 허세일 따름이다.

지금 공화국의 핵능력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와서도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퇴성이 올린데 이어 핵탄두의 실물공개, 탄도로켓대기

권재돌입 환경모의시험, 대출력고체로켓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등 공화국의 핵공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해졌다. 이제는 미국본토까지도 공화국의 무시무시한 핵탄두의 사정거리를 들어오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

본사기자 김철호



은 《현실적인 핵위협》이니 하며 매일 숨넘어가는 소리들을 지르고 있다. 미국에 운명을 맡기고사는 가련한 박근혜역적폐당은 《심각한 안보위기》를 떠들며 《핵우산제공》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해결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다급해난 미국이 핵전략폭격기를 남조선에 파견한다. 《한미련합공군력의 날 2016》 행사를 벌린다하며 부산을 퍼위대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의 핵타격능력에

안절부절못하면서도 저들의 맥빠진 《힘》을 파시하며 체면이나 세워보겠다고 부질없는 놀음을 벌려대고 있는 것이다.

그런다고 공화국이 움직 놀라기라도 할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가장 적대적인 교전관계인 조선과 미국사이에는 전운이 감돌지

만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공화국이다. 그것을

이번의 두 항공행사를 통해서도 세인은 본다.

본사기자 김철호



《자살명소》와 행복의 강반

위라고 말할수 있다. 머리에서 빨끌까지 벤 생의 의지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버리고 자살하려는 독한 마음을 먹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자살 자수는 년 평균 1만 5 000여명에 달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병원응급실로 실려오는

나누는 이야기의 일반적인 화제거리도 자살문제이고 《대통령》이라는 박근혜까지도 자살을 의미하는 노래 《달리기》를 무척 좋아한다는 남조선은 그야말로 지옥같은 세상이다.

이런 지옥에서 다리의 란간이나 높인다고 자살 자수가 적어지랴.

남조선은 이렇게 늘어나는 자살로 인권의 생지옥임을 세계의 면전에서 시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집권세력이 입만 째지면 《북의 인권》이 어떻소 하고 왜 가리침을 돋구니 가소롭다 해야 할것이다.

평양에는 시민들의 첫줄 기인 대동강이 있다. 그리고 대동강을 가로지른 유통교, 대동교를 비롯한 많은 다리들도 있다. 그러나 대동강의 다리중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삶을

비판하며 강으로 몸을 던지는 현상을 눈을 씻고 찾았어야 볼수가 없다. 유명한 유통교의 란간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어깨

아래에도 미치나마나한 낮은 높이이다. 사람들은 유통교우를 거닐며 풍치 수려하고 현대적인 평양의 모습과 아름다운 대동강반을 마음껏 부감하며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웃음짓군 한다.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맑은 물 출렁이는 대동강에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비롯한 유람선들이 떠다니고 뽐트놀이하는 남녀로

소의 흥겨운 모습들이 눈에 띠어진다. 그로 하여 웃음높고 더욱 아름다운 대동강반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인민존중의 사회에서 사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마다에 안고 있다. 행복의 오늘도 좋지만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릴 래일은 얼마나 황홀할가 하는 확신과 랑만으로 즐거움에 젖어 있고 노래속에 사는 인민들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살이 짓들 자리가 없다. 언제나 기쁨과 웃음이 차넘치는 공화국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얼마전 박근혜는 자기가 즐겨 듣는 노래로 《버터플라이(나비)》를 언론에 소개하였다.

어리석은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날개를 펴 날아오르겠다는것이 노래의 내용이다.

이 노래의 가사를 읊미해보면 그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것이 순간에 드러난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누에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여기서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는 어리석은 국민은 나를 몰라준다는 박근혜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는 자기를 저주 규탄하는 남조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는 박근혜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는 자기를 저주 규탄하는 남조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는 박근혜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는 민의와 민심 같은 것은 해당초 안중에도 없다. 자기가 하는 일은 덮어놓고 다 옳고 무지

하고있다. 한마디로 자기는 감춰진 보물인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과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한다는 비아냥이다.

사실이 그런가. 그의 해석파는 정반대로이다. 《누에속에 감춰진 너》 박근혜는 남조선사회에 진귀한 보물이 아니라 재앙단지이다. 남조선인민들과 겨레에게 엄청난 화재를 부리고 남조선인민들이 한결같이 반대배격하는 일본파의 범죄적인 군성노예문제에 대한 《합의》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였다.

《대북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도전하여 개성공업지구마저 깨놓아 북남관계를 완전격파에로 몰아갔고 지금은 《대화도 필요없고 재체일면만이 필요요》 하다며 사태를 더욱 혐악한 국면으로 끌고가고 있다.

내외가 저주하고 그로 뿐 반대하는 《싸드》 배치를 강행하는것이나 구린내나는 오물단지인 청와대민정수석 우병우, 《국회》에서 해임전의 안을 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를 끌까지 비호하며 기고있는것이나 다 민의와 끝까지 엉서나가는 남조선집권자의 독선적인 기질, 독재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가 즐겨 듣는 노래 《나비》를 통해서도 남녀민심과 겨레는 넌의 못된 파쑈기질은 언제가도 변할수가 없고 죽어야만 고칠수 있는 악성질병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박근혜가 즐겨 듣는 노래 《나비》를 통해서도 남녀민심과 겨레는 넌의 못된 파쑈기질은 언제가도 변할수가 없고 죽어야만 고칠수 있는 악성질병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김경선

극심한 차별을 당하는 남조선녀성들

였다. 이것은 공공기업의 여성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박근혜년의 침

발린 소리가 한갓 기만에 불과했다는것을 여지없이 실증해주고 있다.

박근혜역도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당선되면

《녀성지위는 세계 최하위》, 《녀성차별의 세계적교실》, 《손상되는 여성존엄》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쑈독재와 반인민적 통치로 연명해 가는 박근혜 역적폐당이 권력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남조선녀성들의 처지는 절대로 개선될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가

관료가

백성을

《개, 돼지》로

표현하였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은것도

엊그제의

일이다.

《누에속에 감춰진

너》는

누구인가.

박근혜는

그

진귀한것이

자기라

온근히

노래속에

자부

를 비튼다.

이것이 바로

김경선

퇴임후 안전을 노린다

최근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자를 미화분식하려는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우심하게 나타나 민심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야당들과 언론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의 미래창조과학부산하의 우정사업본부는 박정희가 출생한지 100년이 되는 2017년에 《박정희기념우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내부규정까지 끌어고 치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연구원은 청사앞에 있던 장영실(자동물시계)을 만든 15세기 기술자)의 동상을 옮기고 그 자리에 《유신》독재자의 동상까지 세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는 《〈유신정권〉의 장기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꾀한 술수》라고 비난하며 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야당들과 각계가 항의 규탄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현 집권자가 측근들에게 자기가 정치에 발을 잠근 것은 《아버지의 명예회복》문이며 그것은 자기의 필생의 목표》라고 내놓고 말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부터 현 당국자는 집권 후 5.16군사정변을 《구국혁명》, 《불가피한 선택》으로 미화하면서 《유신》독재자를 《근대화를 이루한 〈대통령〉》,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역사적인 물》로 추어 올리는가 하면 애비의 《업적》을 요란스레 광고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도 서슴없이 벌려놓았다. 한편 《유신》독재자의 《미완성사업》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협약하면서 여기에 1차적으로 1억 7,000만 US\$의 자금을 향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 집권자의 《유신》독재자 치적 놀음이 단순히

애비의 《공적》을 미화분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임기말까지 어떻게 하나 애비에 대한 남조선 민심의 부정적인 식을 바꾸어놓고 그에 토대하여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보수세력의 재집권으로 퇴임후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보겠다는 어리석은 흥심도 있다.

현 집권자의 남은 임기도 이제는 1년반도 안된다.

그가 3년반 넘는 기간 권력의 자리에 틀고 앉아 저지른 죄악은 이전 독재자들을 무색케 한다.

사대매국정치로 남조선을 외세의 더욱 철저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돌격대가 되어 그 무슨 《위협》과 《도발》,

《인권》을 피터지게 고아대며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딴낸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권력을 불법비법적으로 강탈하고 인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세월》호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부족하여 침략적인 미국의 《싸드》 배치 놀음으로 온 남조선땅을 불안과 위험 속에 잠근 것 역시 박근혜 《정권》이다.

어디 이뿐인가.

극우보수단체 《어버이련합》의 불법집회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부정부패사건, 최순실, 차은택파의 부적절한 관계와 특대형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 등은 도적중의 상도적이요, 부패의 왕초는 다름 아닌 현 남조선집권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돌보라는 민심은 뒤발로 걸어차고 자기의 치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며 권력에만 미쳐들어가는 이런 정치마녀를 남조

선인민들은 저주하며 그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권력을 놓는 순간 제독이 날아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박근혜는 퇴임후 안전을 노리고 보수집권세력의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친박계가 비박계의 손발을 끊어매고 《새누리당》을 장악한채 해년의 《대선》을 치르도록 조종하는가 하면 2017년 하반기에 《박정희기념우표》를 발간하기로 하고 2012년에 있은 《대선》 때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불법비법적인 인터네트 《댓글》을 만들어 뮤포시킨 자들을 앞으로의 《대선》을 위해 지금도 그대로 남조선 군싸이버사령부에 두고 부려먹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실례들이다.

《유신》독재자는 권력의 단맛만 즐기다가 비명횡사라는 쓴 것을 들이켰다.

장기집권을 꾀하며 《유신》독재부활에 미쳐돌아가는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퇴임후 《안전보장》이 한갓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심의 요구대로 제때에 역사의 시공창으로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철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는 것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남조선정계에 또 하나의 특대형의 부정부패폭탄이 터졌다.

남조선의 집권자가 심복들을 내세워 퇴임후 생활을 재정적으로 뒤받침할 《미르재단(문화재단)》과 《K스포츠재단(체육재단)》을 비법적으로 설립, 운영해오고 있는 내막이 드러난 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한때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운 정윤희의 전처인 최순실과 광고영상제작감독 차은택의 막후조종하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설립되어 운영되여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삼성그룹,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짚은 기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기부금》의 명목으로 걷어들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밝히면서 언론들은 보통 몇 달이 걸리는 재단설립신청과 허가과정이 하루만에 결속되고 두 재단의 자금지출내역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등 재단이 불법적으로 운영돼왔지만 문제시되지 않은 것은 막강한 권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당사자가 박근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폭로되자 야

당들과 각계층 단체들은 일제히 《제2의 구국봉사단 사건》, 《터질것이 터졌다》,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며 현 집권자가 나서서 의혹을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에서 미운 오리취급을 받고 있는 비박계도 동조하고 있어 보수집권세력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급해맞은 박근혜가 《북한의 핵시험도발로 위기 가고조되는 이란 행동은 위기와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것》, 《류언비언》이니 뭐니 하면서 공화국을 걸고 사태가 크게 번져지는 것을 덮어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문은 계속 커지고 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1962년 당시 삼화고무그룹 회장 김지태로부터 친탈한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등 수많은 특대형부정부패행위들을 옆에서 지켜본 박근혜에게 있어서 부정부패는 천하에 둘도 없는 도적왕초인 애비로부터 물려받은 천부적기질이다. 박근혜가 23살나던 때인 1975년 《구국봉사단》총재에 올라 앉아 사이비목사인 최태민을 끼고 60여개의 대기업체들로부터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걸어모아들인 것은 그의 부정부패기질이 남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권력을 휘둘러 인민들의 혈세를 빼내내다 못해 온갖 인맥관계까지 총발동하여 목돈을 챙긴 이번의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은 박근혜야말로 부정부패의 왕초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자기의 더러운 정치야욕과 안일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 앉아있는 한 정윤희 《국정》개입 사건, 《최순실게이트(최순실부정부패사건)》와 같은 권력형부정부패사건들이 련속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퇴임후 필요한 비밀자금 조성에 환장하여 돌아치고 있는 박근혜가 《대통령》 냉거지를 쓰고 있으니 권력 총이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화하고 민생이 도란에 빠져드는 것이다. 음침한 청와대에 틀고 앉아 밤낮 《청렴정치》이니, 《국민들의 생명안전》이니 하며 중이 넘불위우듯 하는 것은 그대로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통이고 모독이다.

박근혜와 같은 인간오물들은 하루빨리 매장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옥철웅

박근혜 살인 《정부》를 당장 끝장내자

남조선 단체가 강조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환수복지당이 9월 25일 백남기농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박근혜역적폐당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공안당국의 살인탄압에 의해 중태에 빠졌던 백남기농민이 25일 끝내 운명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백남기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론평은 단죄하였다.

론평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물대포 조준사격으로 농민을 쓰러뜨렸다고 하면서

론평은 오늘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는 민중의 복지세상, 민중이 주인된 세상을 앞당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주와 민생을 유린 본사기자



속될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펴력하였다.

미국의 핵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공화국의 핵능력은 끝없이 향상되게 되여있다. 이것은 필연이고 조미관계의 법칙이다.

사고력이 닳대 가리수준이고 친미굴종파 동족대결에 쪘든 박근혜로서는 이런 방정식을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상대를 알고 덤벼라

박근혜는 핵강국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재제를 떠들다 못해 《독자적인 군사대책》, 《평양초도화》를 떠들고 지어 《전쟁지휘부제거》니 하며 도발의 광기를 최대로 올리고 있다.

그런다고 수소탄을 쥐고 미국본토공격능력까지 소유한 공화국이 꿈쩍이라도 하겠는가.

올해 들어와서도 공화국은 민족과 통일을 위해 성의 있고 대범한 제의를 거듭 내놓고 남조선당국이 그릇된 대결정책을 버리고 진정한 통일의 동반자가 될데 대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설득하며 선의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박근혜파당의 대답은 오직 한가지, 대화부정, 제재일변도였다. 지어는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니, 《지휘부제거》니 하는 폭언까지 늘어놓고 있다.

힘도 없으면서 미국의 《힘》만 믿고 그따위 수작질을 해대고 있다. 공화국의 핵능력과 도화로 미국이 저 하나의 몸

을 전사하기도 바빠나게 되였는데 그 미국을 믿고 설쳐대니 어리석은 바보가 아닐수 없다.

핵을 가진 강국과의 관계에서는 될수록 마찰을 피하는것이 상책이다. 잘못하다가는 정벌의 핵을 들쓸수 있다.

그런데도 《닭그네》는 《나를 죽여주시오》나 같은 《꼬꼬댁》 소리를 련발하고 있다.

요즘 남조선에서 군대에 나가기 싫은 예술인들이 《정신병자》 홍내를 낸는데 박근혜는 미친척 하는게 아니라 북의 핵에 진짜 미쳐버린 모양이다. 죄는 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복이 맞는다고 이런 《닭그네》 때문에 결국 재앙을 들쓸것은 누구인가.

《닭그네》가 푸른 지붕의 닭우리에 몸담고 있을 날도 그리 오래지는 않다. 그러나 집에서 쫓겨날 그날까지도 《닭그네》는 《북핵문제》를 조금도 풀수 없다. 그저 세상이 소란스럽게 《꼬꼬댁》 소리만 지르다 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닭그네》의 《북핵해법》

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에서도 성공하였으며 세계에서 몇몇 나라 밖에 못 가진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기술도 확보하였다. 얼마전에는 핵탄두폭발시험에서까지 완전성공하여 세상을 또다시 놀래웠다.

공화국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핵능력을 고도화하여 최종판문을 넘어서 있으며 그것을 막을 힘은 이제 세상을 어디에도 없게 되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근혜는 《고도의 응징대세》

나, 《제재 강화》니 하며 련일 북다소동만 피워대고 있다.

동족이 하는 자위적권리행사

를 어찌지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서 나풀대고 있다. 하지만 고강도제재를 초월한 다른 제재를 하고 군사적선택안을 다 써본댔자 북에 의해 새롭게 쓰여진 핵의 혁사를 지워버릴수도, 멈추어세울수도 없게 되여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입만 열면 《북핵제거》를 떠드는것이 아말로 알 못 낳는 탓이 《꼬꼬댁》 소리만 요란하다는 것이다.

북은 핵시험하는데 닭그네는 닭시험만 한다.

남조선의 항간에서 이런 조롱이 울려나오는것도 우연하지 않다.

그 머리로 풀수 없는 방정식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원인을 찾고 치료해야 한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동북아시아의 위협》이니 뛰어난 《미국의 혁역》과 《미국의 혁역》이라는 것을 원인이 있다. 바로 미국의 오래되고 날로 가중되는 핵위협, 범죄적인 적대시 압살책동이다. 조미적대관계, 교전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롭게 살자는 공화국의 제의를 시종 거부하고 핵동등으로, 제재동등으로 위협만 해온 결과 조선은 미국도 깜짝 놀라는 동방

의 핵강국이 되었다. 어리석은 것은 미국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미국핵에 대해서는 찍소리 한마디 없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역제력을 양고들며 법석 고아대고 갖은 지랄발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에 경고》한다며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B-1B》를 포함한 전략자산들까지 련이어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것이 불는 불에 키질하는 것으로 되여 공화국을 핵무력 강화에 더욱 떠밀어주고 있다. 이것은 세상이 보는 현실이다.

청와대 박근혜년의 칠거지악을 폭로한다

지금 이 땅은 청와대에 틀고 앉아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박근혜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으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남북 관계는 전쟁직전 상황에 다달으고 있으며 『국격』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망한 민국』,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 주소이다.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 민중은 그래도 너 성대통령이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가 하는 한가닥의 미련을 가지였다.

하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모든것이 최악에 치했을뿐이다. 박근혜에게 표를 찍어준 국민은 독사를 품어안은 격이 되고 말았다.

국민을 천시하고 불행에 빠뜨린 죄악

녀자가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것을 우리 조상들은 『불순구고』(不順舅姑)라고 일컬으며 칠거지악의 첫번째로 꼽았다.

녀자라면 부모들에 대한 공경을 제일로 중히 여기고 효도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치인에게서 부모를 공경하듯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백성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짐은 곧 국가이다』는 극단적인 『권력 만능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감히 민중의 머리우에 군림한 너 황제처럼 행세하고 있다.

박근혜에게 있어서 민중은 신성하고 숭앙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한갓 통치의 대상일뿐이다.

『백성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경악할 망언이 다툼아닌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여나오고 『대중이 아무리 천박하고 미개 하더라도 귀족이 중심을 잡으면 그 사회는 건재하다.』는 봉건군주시대의 통치관념이 권력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민족적인 통치를 반대해나서는 모든 세력들이 불순세력으로 매도되고 잔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것이 이 땅의 엄연한 현실이다.

5천만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서도 제 애비를 내세우는데는 얼마나 국정인가.

박근혜는 자기가 정치인이 된것이 애비의 『명예회복』

이 땅을 미래가 없는 절망사회로 만든 죄악

칠거지악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것을 『무자』(無子)라고 하면서 두번째조목으로 꼽고 있다.

물론 오늘의 현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여 죄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 자명하다.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마저 베마른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서민들이 제일 우려한것이 아이낳이도 해보지 못한 그가 혹시 폐정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공연한 걱정이 아니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셈이다.

『대통령』 후보시절 박근혜는 『자식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이니, 『어머니는 차식이 열이라도 꿈기지 않는다.』 느니 하며 마치 아이라도 낳아본 여자나 되는듯이 말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여자의 가장 나쁜 행실 7가지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것, 행실이 음탕한것, 나쁜 병이 있는것, 질투하는것, 말썽이 많은것, 남의것을 훔치는것 등을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꼽으면서 그런 여자는 집에서 내쫓았다고 한다.

박근혜의 죄목을 보면 조상들이 『닭그네』를 넘두에 두고 칠거지악이라는것을 만들어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온갖 재양만을 불러오는 귀태를 더이상 청와대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기에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박근혜의 칠거지악을 세상에 폭로한다.

때문이라고 하면서 국민심기기보다 애비내세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같은 모략과 음모, 헌모술수로 『대통령』 자리를 타고앉은 것이 그때문이라면 애당초 통치의 본도부터 그릇된것이라 아니 할수 없다.

그러니 살아숨쉬는 백성은 개, 돼지취급을 받고 저승에 간 『유신』 독재자는 『영웅』으로 찬미될수밖에 있겠는가.

애비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박정희공원』, 『박정희도서관』, 『박정희기념관』 같은것을 설립하는데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펴부으면서도 국민을 위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민생복지금마저 잘라버리는 박근혜이다.

수백만이 절대빈곤층으로 굶러떨어지고 백수십만명에 달하는 로인들이 길거리로 방황하며 빌어먹거나 쓰레기통을 뒤지고있어도 박근혜는 『국민행복』 타령만 하고있다. 패륜폐덕이 만연되어 『동방무례지국』으로 비난받고있다.

오죽하면 박근혜의 민중천시, 민중수탈의 악덕이 란무하는 속에 자살왕국, 산업재해왕국 등 온갖 오명을 다 쓰고있는 이 땅의 참담한 현실을 두고 민중이 『박근혜만 행복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불행한 사회』라고 울분을 터치고있겠는가.

박근혜에게서 민중을 부모처럼 여기는 그 무슨 선행을 기대하는것은 구보토각(거부기찬)에서 럴을 찾고 토끼에게 뿐을 찾는다는 뜻)을 바라는것 만큼이나 어리석은짓이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체제통일』에 광분한 죄악

칠거지악에서는 여자가 나쁜 병이 있는것을 『악질』(惡疾)이라고 명하고 있다.

의학이 발전하지 못하였던 옛날에는 몸쓸병을 만나는것 만큼 큰 불행은 없었을것이다. 오만가사를 다 돌보아야 하는 너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오늘날 현대의 학의 덕택으로 그 옛날 인류를 무섭게 위협했던 많은 악성질병들이 그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였다.

하지만 청와대에 틀고 앉아있는 박근혜에게만은 현대의 학의 힘으로도 고칠수 없는 악성질병들이 남아있으니 그것이 바로 동족대결증과 불통, 독선병이다.

바다건너 양인들과 왜인들과는 손해를 보면서도 동맹강화와 관계개선을 해결하고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통일의 동반자로 불러주며 화해와 단합의 손을 내미는 동족파는 한 사코 퍼를 물고 해보려고 날뛰

박근혜는 원통하게 수장된 어린 자식들을 찾고 부르는 유가족들의 통곡소리가 차고 넘치는 때에 화사한 웃자람을 하고 미국대통령 오바마를 청와대 안방에 맞아들여 교태어린 웃음을 짓고 돌아갔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민족의 전도를 알수 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인천어린 이집사건, 울산계모사건, 신원영어린이 살해사건과 같은끔찍한 사건들이 꽂길 사이없이 터지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떠올라 청소년자살률이 세계 1위에 이르고 있다.

겹쳐드는 생활난과 앞날에 대한 절망감으로 청년들이 사랑, 결혼, 해산, 집나중에는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세대』로 전락되고 근간에는 여기에 꿈, 희망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뜻에서 『7포세대』라는 류행어까지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각계가 『역사쿠데타』로 단정한 혁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역시 후대들에게 외곡된 혁사

외세와 정분이 나서 돌아친 사대매국죄악

바람난 계집 집안을 망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여자의 행실이 음탕한것을 『음행』(淫行)이라는 칠거지악의 한 조목으로 박아놓고 음녀, 탕녀를 경계하였다.

시집은 계집이 외도질에 미쳐 돌아가는것은 한 집안의 풀치거리에 불과하지만 권력자가 외세와 정분이 나서 돌아치면 민족이 엄청난 치욕과 화난을 당하게 된다.

통탄할노릇이나 이 땅에 그런 요부가 있으니 그가 바로 외세에 정분이 난 특등정치참녀 박근혜이다.

총년이 늦바람나면 속곳에 단추를 단다고 나이도 적지 않게 예순고개를 활션 넘긴 박근혜가 요망한 웃음을 지으며 지구촌 곳곳을 동포서랑하는 꿀은 이동리, 저동리 돌아치며 이 사내 저 사내 가리지 않고 지분거리는 탕녀의 추행그대로이다.

미국사내의 품에 안겨서는 『한미동맹찬가』로 흥취를 돋구어주면서 갖은 수치를 다 들다 못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싸드』 배치 요구까지 군말없이 받아문 친미사대매춘부가 박근혜이다.

일본상전들을 모시는데 극성

관을 심어주어 그들을 정신적 장애자로 만들려는 박근혜의 베풀어진 후대판이 애비에 대한 『효도』와 뒤범벅이 되어 만들어진 특허품이다.

부언하건대 아이들의 왕국, 청년강국으로 빛을 뿌리는 북을 좀 보라.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내세우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청년들의 꿈과 리상을 온갖 정성을 기울여 꽂피워주며 그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영웅들로 키우는 이북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꿈같은 현실을 보느라면서 세상을 잘못 만나 꽂망울도 터쳐보지 못하고 간 『세월』호의 어린 원혼들이 뇌리에 겹쳐들어 눈물겹기 만하다.

부모들과 나란히 초불시위에 동참한 이남아동들의 모습은 이 땅을 미래가 없는 절망 사회로 전락시킨 박근혜에 대한 항거와 울분의 표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니 『체제통일』이 불가능함을 아무리 결에서 말해주어도 우이독경이고 통일부나 외교부당직자들도 박근혜의 입에 맞추는수밖에 없는것이다.

아직도 박근혜는 북을 압박하고 제재하면 조만간에는 봉파될것이라고 믿고있다니 참기가 막힌 일이다.

젊은 령도자와 수천만민중이 하나로 훌륭 풍처 외부세계의 제재나 압박에 조금도 기가 꺾이우거나 혼들리는 기색이 없이 맹비약하는 이북에 대해 『내부적도전』이요, 『체제동요』

온갖 질투와 모략으로 동족을 헐뜯어댄 죄악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웃의 경사를 제 집안경사처럼 기뻐하고 남의 불행을 자기 불행처럼 아파하고 상호부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반면에 남이 자기보다 잘되는것을 공연히 시기하면서 꺽아내리기 좋아하는 속된자들을 요물로 태매해왔다.

심술사납고 시기하는것을 『질투』(嫉妬)라고 칭하여 너자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칠거지악중의 하나로 꼽으며 그런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는것을 경계해온것도 그에 대해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라고 하겠다.

시기와 질투, 이것 역시 못된 년의 추한 모든것을 빼여물고 세상에 나온 박근혜의 악덕중의 하나이다.

송무백열이라고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잣나무가 기뻐한다 했건만 분단선너머 이북땅에서 동족의 경사가 전해지면 북통이 터져 온밤 잠 못 이루고 청와대안방에서 머리칼을 바싹 쥐여뜯는 박근혜이다.

동족의 일에는 한사코 따라다니며 훼방놓는 박근혜의 눈에는 북의 첨단생물기술제품도 『탄저균최신병기』로, 인공위성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잠수함탄도탄 수중발사시험성공도 『사진조작』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언제인가는 북에서 이룩되고 있는 핵에너지공업의 팔목할랄전에 절치부심한 나머지 핵안전수지자회의라는 나트나 『냉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체르노빌핵발전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될것이라는 생

말장난으로 민심을 기만하며 화만 불러온 죄악

부유장설이란 긴 허를 가진 여자라는 뜻으로서 수다스러운 너인의 말은 온갖 화의 발단으로 되여왔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여자가 말이 지나치게 많은것을 『구설』(口舌)이라는 칠거지악의 하나로 꼽고 다사스러운 계집을 멀리하였다.

빈말공부, 말장난에 대해 말한다면 첫 대상에는 마땅히 박근혜를 놓아야 할것이다.

박근혜가 장미빛 공약들을 강물처럼 쏟아내던 2012년의 『대통령』 선거때에 우리 국민들은 진작 그녀의 말썽많은 입부리에 대해 주의를 돌렸어야 했다.

정말이지 박근혜의 공약들을 이름만 꼽자고 해도 숨이 찰정도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수다쟁이가 제일 요란하게 떠들어던 『경제민주화』 공약 하나만 보더라도 박근혜는 집권후 친재벌정책과 반중기업, 반서민정책에만 몰두하다가 반년도 안되어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스스로 종료를 선언하였다.

가능성』이요 잠꼬대나 같은 소리만 하고있으니 누가 복적이라고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항간에서 박근혜에 대해 빙을 달라는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파자를 먹으라.』고 왕청같은 소리를 하였다는 프랑스 루이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안네뜨에 비유하여 『말이 안통하네 브로』로 비난하는것은 결코 웃어 넘길 일만도 아닌것 같다.

치유불가능한 병에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것밖에 다른 방책이 없거니 이 말을 박근혜에게 해주고싶다.

뚱맞은 소리를 하여 국제적 망신만 자초하고 지어는 『북핵이 해로에 사용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잡소리까지 늘어놓았다.

그뿐이 아니다.

날로 그 정당성과 위력이 파시되는 북의 병진로선에 대해 『실현불가능한것』이라고 떠들어대고 가장 애민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공포정치』요, 『체제불안정』이요 하고 험들었으며 심지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화로 만인의 경란을 자아내는 세계최상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등은 애당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이들의 굶주림』이니, 『산모와 유아영양실조』니 하는 요설로 내외여론을 기만하고있다.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 모르고 집안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동족을 헐뜯어대는 일뿐이다. 만찬회니, 오찬회니 하는 먹자판들에서 까지 동족에 대한 악의에 찬 시비증상과 혐담질만 하고있다니 속통이 그렇게 못되며 악녀가 또 있겠는가 싶다.

시기와 질투는 평생 만족을 모른다.

늙고 퍼페한 몸뚱이가 죽어너부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것이 바로 동족에 대한 박근혜의 시기와 질투심이다.

이것이 민족을 위해서도, 남 『한』 민중을 위해서도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들어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오죽했으면 『대선』 때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한 덕에 『새누리당』 안에서 국민행복추진 위원장자리를 선사받았던 인물조차도 여당과 청와대에 침을 뱉고 뛰쳐나가는 일이 벌어졌겠는가.

집권 6개월도 되기 전에 경제, 민생관련공약 200여개 중 절반에 달하는 공약들을 파기하거나 리행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박근혜

파멸의 구령텅이에서 벗어나보려는 가족으로 온 박근혜

최근 남조선에서 청와대의 악녀로 소문난 박근혜가 그 무슨 《국가비상사태》를 떠들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얼마전 공화국의 핵탄두 폭발시험 성공소식이 전해지자 열흔이 나가 아래것들에게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의 상황을 주시》라고 고아했다는가 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 장, 차관도 론회하는데서는 《비상시국》과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한바탕 떠들어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파당과 보수언론들은 남조선 각계층의 반 《정부》 투쟁을 《국기문란행위》와 《사회혼란조성》 등으로 몰아대면서 국도의 《안보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파산에 직면한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내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흥악한 속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친미사대와 동족 대결에 미쳐 날뛰던 박근혜당이 과연 구령텅이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 대고 있는 것은 세상이 보

는 현실이다.

올해 들어 와서만도 공화국은 적대 세력들이 보란듯이 수소탄시험과 지상대지 상증장거리 전략 탄도로 케트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성공한데 이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서 또 성공하여 세계를 놀라웠다. 특히 얼마전에 있은 핵 탄두 폭발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미국과 박근혜당이 그처럼 악을 쓰며 매달리고 있는 《초강도 제재》와 군사적 압박책 등을 산산조각내는 무서운 핵회성이거나 같다. 화는 쌍으로 온다고 여기에다 《북의 핵 및 미싸일 위협》을 구실로 물어들여서는 《싸드》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박근혜와 련결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부정부패 사건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부정추문사건, 반인민적인 로동정책 등에 대한 각계의 비난파항의 투쟁 등으로 박근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부터의 출로를 그 무슨 《국가비상사태》 소동을 두고

와 같은 살벌한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찾으려는 것이 박근혜의 속심이다.

그의 이러한 술책은 《유신》 독재자가 1971년 12월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유신체제》를 조작하였던 때를 그대로 련상케 한다.

그 애비에 그 딸이라고 오늘은 또 박근혜가 애비의 수법 그대로 《비상사태》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듯이 오늘 날 청와대를 비롯한 남조선 통치기관들이 공화국의 핵타격 조준경 안에 들어가고 《싸드》 배치에 항거하는 각계층의 반 《정부》 투쟁이 고조되고 있으며 권력 고위층의 부정부패 행위로 민심이 분노하고 로동자대중이 총파업에 떨쳐나서는 등 남조선에 수습하기 어려운 대혼란과 《비상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 그 자신이다.

남조선 언론들과 야당들이 박근혜의 《국가비상사태》 소동을 두고

《안보위기》를 내세워 《싸드》 문제와 우병우비리사태 등 당국에 불리한 여론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라고 하면서 《안보문제》를 대내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신랄히 비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다.

수십년 전 《승공통일》을 떠들던 《유신》 독재자가 혁신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듯이 친미굴종과 동족 대결에 미쳐 북남관계를 완전파탄시키고 민주주의 파괴와 파쑈 독재 부활로 온 남조선을 인간 생지옥, 란장판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의 운명도 같게 같다. 남조선 인민들이 진짜 《비상사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모든 재앙의 화근인 박근혜를 하루빨리 매장해버리는 것뿐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최근 박근혜가 청와대에 장 차관 100여 명을 모아 놓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선도해 달라.》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네데를 랜드총리를 만나서는 《핵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니 뛰니 하면서 또 다시 동족을 혐담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것은 최악의 통치 위기를 보면 해보려는 산송장의 필사적 몸부림, 공화국의 핵 위협 앞에 날이 갈수록 좌절과 절망에 빠져 리성을 잃고 질리대는 대결 팽녀의 너두리와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박근혜 역도는 대내외 정책의 총파산에 각종 권력 형 부정부패 사건들까지 겹쳐든 것으로 하여 겨우 부지해오던 잔명마저 끊길 처지에 처해 있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와 박근혜는 《부정부패 척

도 더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 공화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자기의 강위력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나가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 속에서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공화국의 핵에 대한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민족의 통일지향과 민심을 외면하고 동족 대결에만 피눈이 되어 날뛰는 보수파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려는 투쟁기운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제 박근혜가 아무리

발악해봐야 대내외 정책의 총파산을 멈춰세울 수도, 기울어진 민심을 바로잡을 수도 없게 되었다.

분노한 남조선 민심과 대외의 뜻매질 속에서 박근혜가 목숨이나마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동족에 대한 악담질이 아니라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리은심

파람에 터지꼬리 놀듯 미국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며 미국의 하인 노릇하는 것이 물렁 팔죽같은 그의 《외교술》이다.

자격도 없는 자가 《자격》 타령을 운운하고 있으니 참 가판이 아닌가.

윤병세의 망발은 동족 대결 정책의 파산으로 막다른 궁지와 절망에 빠진 정신병자의 넉두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입만 떨어지면 《북핵》을 쳐치는 걸 봐선 윤병세가 대결 몽유증이 있던가 아니면 정신병에 걸렸든가 한것이 틀림없다.

그것도 말기종세, 단단히 《미친병세》다.

김현

국제법의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얼마전에 있은 제 17차 빨리 불가당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 마련된 최종문건과 유엔총회 제 71차 회의 기간에 열린 77개 집단상 회의에서 발표된 선언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제재 소동이 철저히 타당한 법률적 근거와 공정성, 정의를 무시한 것으로서

금새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기는 주권이란 주권은 미국에 송두리채 내맡긴 꼭두각시 《정권》, 주구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나 하는 윤병세 주제에 생각이고 뭐고 할 줄이 나 알겠는가.

박근혜의 치마폭에나 물어다니는 바지 저고리 가 윤병세이고 오뉴월 마

(7면에서 계속)

불쌍사나운 그 입으로 독설을 내뱉을 때마다 살기 어린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남북관계는 언제 불꽃이 될지 알 수 없는 극단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판도라의 함》에서도 고통과 재앙 뒤에는 희망이 나왔다고 했던

말도 적왕초가 되여 부정부패를 일삼은 죄악

집안에 도적이 있으면 가문이 수치를 당하고 지경 안에 도적이 성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모들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이다.

녀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조상들이 도적질하는 것을 《도

절》(盜竊)이라고 이르며 여자가 범하지 말아야 할 칠거지역의 하나로 본 것은 우연한 것이다.

하지만 워낙 무식하고 무지한 독재왕의 퍼를 물려받은 데다가 천하의 몸풀 악덕이란 악덕은 다 겹비한 박근혜는 도적질과 부정부패에 도 능수이다.

부정부패는 박근혜가 문고유의 악덕이고 달리 될 수 없는 필연적 병폐이다.

박정희가 집권 18년간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막대한 재물을 쟁취하고 그런 애비를 보며 20대에 벌써 《구국녀성봉사단》이라는 데 머리를 들이밀고 돈벌이에 미쳐 돌아간 박근혜이다.

동생들도 박근혜에게 뒤질세라

만 품수 없이 나풀대는 박근혜의 입에서는 온갖 광언폐설들만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장미빛 공약들을 람발하며 민심을 기만하고 품수 없는 입방아질로 화만 불러오는 박근혜의 그 꼬락서니를 언제까지 보아주어야 하겠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만 품수 없이 나풀대는 박근혜의 입에서는 온갖 광언폐설들만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장미빛 공약들을 람발하며 민심을 기만하고 품수 없는 입방아질로 화만 불러오는 박근혜의 그 꼬락서니를 언제까지 보아주어야 하겠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돈 몇 품때문에 저들끼리 죽일내기를 한 박근혜의 4촌, 5촌들이 놀아댄 짓거리들까지 품자면 끝이 없다.

《현 정사상 초유의 권력 형 비리 게이드》로 불리우며 세상을 경악케 한 성완종사건, 현직 검사장이라는 작자가 주식을 가지고 통간질하고 직권을 악용하여 퇴물을 받아먹은 진경준사건, 현재 온 남 《한》 땅을 유통치게 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부정비리의혹 같은 것들은 박근혜 집권 시기에서 들어와 집권 상충부에서 성행하고 있는 특대형 부정부

폐 행위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박근혜의 집권 후 남한

사회는 꼬대기에서 밀바닥까지 썩을대로 썩은 부패 투성이, 오물천지로 화하였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다.

박근혜와 그 측근들이 청와대에 모여 앉아 부정협잡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마구 탕진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송로버섯이니, 철갑상어 알료리니, 상어지느러미료리니 하는 고급료리들로 포만포식하고 게트림 할 때 절대 다수 민중은 생활 고지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부정부패 범행자, 전파자들로 주변을 꾸리고 과권 치한 불법 축재를 일삼고 있는 세상이 경악할 도적왕초 박근혜를 민중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

고금동서를 살펴보면 만사람의 지탄을 받은 추녀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안방에 틀고 앉아 온갖 못된 짓을 다 일삼으며 죄악에 죄악을 덧 쌓아가는 박근혜와 같은 악녀는 일찌기 없었다.

자고로 행실이 칠거지역에 해당하는 너자는 집안에서 쫓아냈거나 민족 앞에 헤아릴 수 없는 만고대죄를 저지른 박근혜를 마땅히 청와대에서 내쫓고 민심의 주연한 심판대에 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의 칠거지역을 폭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며 민중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여지 영(필자는 남조선 주민임)



주린 서민, 단식하는 《새누리당》

지난 9월 25일 백남기농민이 끝내 숨졌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채 310여 일, 그는 미음도 삼키지 못하다 그대로 갔다.

그동안 백남기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자도, 쏘도록 지시한 자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그의 병문안 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저들의 《정당성》을 밝히는데만 급급하다.

명백한 권력의 살인이 분명한데 겹쳐온 그의 시신에다 부검의 칼을 또 대겠다고 한다.

소원 하던 《쌀값 정상화》는 백남기농민의 한으로 남았다.

백남기농민의 한만이 아닌 전체 남조선 농민들의 원한이고 외국 시장에, 재벌들에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하는 99% 서민들의 원한이다.

살인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그의 가족만의 요구가 아니다.

《세월》 호참사 문제도 그렇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아직 해결 못되고 있지 않는가.

자본과 권력의 부패에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원한이 가는 곳마다에 서리여 있다.

서민들은 주려 있다.

고단한 생을 보듬어줄 손에 주려 있고 살펴줄 정에 주려 있다.

허리 휘여지게 누르는 가게 부채나 실오리 같이 위태로운 일자리, 알파한 돈주머니로 하여 비여가는 삶을 채워주기를 바란다.

초보적인 생존권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자살이라는 극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주는 밝은 세상을 원한다.

그러나 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은 민생을 먼저 둔 이해야 할 《국회》를 등물 《국회》로 만들고 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그들을 단식을 한다고 야단이다.

《국회》에서 다수가 결정된 문제를 저들의 정치적 리익과 배치된다며 단식을 한다.

《세월》 호유가족들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백남기농민을 위해 단 한끼도 건넜다.

본사기자 김정혁